

2017 새 설계

안 병 호 함평군수

“역동적인 기업도시 조성...풍요로운 함평 만들기 올인”



“지난해 거둔 역대 최고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17일 “과거의 성취에만 머물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군정으로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만 집중하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안 군수는 이를 위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인과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군민소득을 창출하는 체험관광 활성화,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안 군수는 특히 농축산업과 제조·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역동적인 기업도시 조성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안 군수는 “통합평산단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조속히 공장을 짓고 가동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동차 전용산단이 될 빛그린산단에 관련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라며 “병암축산특화농공단지 선분양하고, 해보농공단지 진입로를 국도 22호선까지 확보장해 신속한 물류 유통체계 구축을 완료한다면 함평은 전남을 대표하는 기업도시로 우뚝서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 군수는 또 농가소득을 증대할 직거래 시스템

빛그린산단 등 기업 유치 박차

함평골프코어 이전 차질없이 추진

관광 기반 확충·소통 정책 강화

구축에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안 군수는 “로컬푸드직매장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 직거래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새로운 영농기술과 임대농기계도 지원해 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안 군수 이와 함께 “소외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신광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기존 복지센터와 다목적센터에서는 다양한 건강, 문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함평전지종합복지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낡고 오래된 장애인 공중목욕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 임대 주거시설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 군수에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선진교육 인프라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안 군수는 “941억원이 소요되는 통합함평중, 통합거점고 건립, 함평골프코어 이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시설 유치에도 힘쓰겠다”며 “특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인재양성기금을 기부한 분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명예의 전당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군수는 또 손볼 확산에서 주포까지 태풍과 해일을 대비한 재난대피 해안도로를 개설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효과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안 군수는 “돌머리권과 주포권을 연계한 힐링 휴양타운을 조성하고 엑스포공원 내 전문문화유물을 활용해 어머니의 일생을 스토리로 한 테마전 시관을 확충하겠다”면서 “함평자연생태공원~상해임시정부청사~해보 용전사~대동담을 연계한 생태역사체험 관광벨트와 수산봉~엑스포공원 습지~함평천 매화꽃길~영산강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관광벨트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군수는 이와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민과의 소통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 군수는 “접수한 민원을 매일 점검토록하는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를 추진하고, 일과 능력 중

2017년 역점 사업은

- ▲전남 대표 역동적인 기업도시 조성
-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공동체 구축
- ▲선진 교육 인프라 확충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마련
- ▲소득과 직결되는 생산적 문화관광 창조
- ▲투명하고 안전한 군민 중심 행정

심의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청렴 마일리지제, 정책실명제, 행정협업 포인드제, 성과관리 등 실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마을 일제방출, 재난 알림서비스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군수는 이어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와 넘어야 할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군민의 역량을 믿기에 걱정하지 않는다”며 “군민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함평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kwangju.co.kr

작년 순천 방문객 800만명 육박

외국인 6만5000여명

지난해 순천시를 찾은 방문객수가 800만명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천의 대표 관광명소인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에는 여름철 폭염과 나들이철 휴일기간 잦은 비,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에 따른 임시폐쇄 등 각종 악재에도 전년보다 많은 543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순천시는 17일 “2016년 순천시를 찾은 방문객 수가 791만795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의 767만9487명보다 3.1% 증가한 것이다.

순천시의 대표명소인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은 자연환경미술클럽, 순천만갈대축제, 별빛축제 등을 통해 전국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지난 11월에 5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 543만2081명이 입장해 전년보다 2% 증가했다.

또 교복체험 등으로 많은 인기를 얻

으며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조례동 드라마촬영장도 전년보다 14%나 증가한 64만5500여명이 방문했다.

역사를 자랑하는 유적지인 낙안읍성도 전년보다 7% 증가한 86만6000여명의 입장객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개관해 한국 기독교 선교역사와 한국 근대사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소로 큰 역할을 하는 매곡동 기독교역사박물관은 방문객이 전년도 1만6000여명에서 2만4000여명으로 49.7%나 늘었다.

특히 ‘정원을 품은 도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6만 5000여명이나 다녀갔다.

순천시 관계자는 “차별화된 순천만 국가정원과 아랫장 야시장 등 다양한 관광 소재가 전국의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광 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로 관광도시 순천의 위상을 높여 1000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정원·습지, 국가대표 관광지 우뚝

‘한국관광 100선’ 3회 연속 선정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이 한국관광 100선에 3회 연속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우뚝서고 있다.

한국관광 100선은 지난 2013년부터 2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관광지 인지도와 만족도, 방문의향, 통신문·내비게이션 분석, 관광객 증가율, 검색량 등 관광통계분석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이번

2017~2018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것을 포함해 평가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특히 2.3km에 달하는 갈대군락과 S자형 수로, 낙조 등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이후 정원을 재경비해 지난

2015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으며, 정원산업 선도와 생태관광을 자원화·세계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17일 “한국관광 100선 3회 연속 선정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과 다양한 상품 개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넘어 아시아 생태수도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순천시 신대출장소 임시개소 3월 정식 개소

순천시는 “지난 16일 해룡면 행정복합시설 내에 신대출장소를 임시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대지구 주민 3만여명은 이번 신대출장소 개소전까지 인감도장 변경과 주민등록증 발급, 보육료 신청 등을 하기 위해 해룡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신대출장소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도로, 교통, 환경과 가족관계, 주민등록, 각종 증명서 발급, 복지 등 대부분의 민원이 가능하며, 기존 신대 농협 내 신대이동민원실은 신대출장소 설치를 계기로 운영이 중지됐다.

순천시는 오는 3월 신대출장소와 도서관, 공립어린이집의 기능을 갖춘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의 정식 개청식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는 이날 자연친화적인 신대도서관도 임시 개관했다. 행정복합시설 3층에 위치한 신대도서관은 87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2월말까지 8000여권을 추가해 총 1만 6700여권의 도서를 갖출 예정이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메디컬센터 | 분양 및 임대

순창터미널 맞은편

1층 약국, 제과점, 편의점 기타 4층 치과, 이비인후과 21층 ~ 24층 2층과 동일

2층 내과, 검진센터 5층 정형외과, 한방의학과

3층 안과, 피부·비뇨기과 6층 물리치료실

대지면적 : 1,057㎡ 지상6층, 주차장 27대

● 1층 : 101호 129.5㎡(구 39평), 102호 137.6㎡(구 41평), 103호 83.4㎡(구 25평), 104호 129.5㎡(구 39평)

● 2층 : 201호 240㎡(구 72평), 202호 240㎡(구 72평)

주 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거리 213-5번지

(주)우원 (주)태우종합건설 분양문의

(063) 653-7806 010-4922-3317